

조성기의 「통도사 가는 길」 연구

- 주체의 욕망 탐색과정을 중심으로

유수연(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지연되는 욕망 |
| 2. 서사를 통한 욕망의 확인 | 5. 결론 |
| 3. 미끄러지는 주체의 기표 | |

1. 서론

조성기의 「통도사 가는 길」은 1990년 『세계의 문학』(여름호)에 발표된 단편이다. 조성기는 8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김만수¹⁾는 조성기와의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그의 작품들이 세속과 초월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기중²⁾, 권영민³⁾, 이남호⁴⁾ 등은 조성기의 작품들을 종교적 체험에서 유래한 존재의 인식과 현실비판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종교인으로서의 작가를 염두에 둔 연구로, 최근에 『우리시대의...』 연작 이후 거대 담론이라 일컬어지는 사상적 조류나 이데올로기, 신앙에 대한 혼돈과 풍자를 그리고 있는 작품군에 대해서만 단편적인 언급을 할 뿐이다.

- 1) 김만수, 「한국의 작가」 세속과 초월 사이의 풍자적 긴장, 『현대소설』, 1991. 겨울
- 2) 이기중, 「작가의 성화에 관한 연구; 김현승, 조성기의 경우」, 백석대 기독교예술대학원, 석사, 2008.
- 3) 권영민,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9.
- 4) 이남호, 『우리시대 우리작가』 조성기, 동아출판사, 1983.

채희운은 「통도사 가는 길」이 금기와 그것의 위반이라는 의미론적 이항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행동의 선에서 나타나는 금기와 위반의 실패로 인한 여러 번의 좌절과 체념이 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⁵⁾고 말한다. 그러나 제의적인 금기와 위반, 그로 인한 좌절로 이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작품의 몇몇 에피소드만을 근거로 도출한 결론일 뿐, 전체를 아우르는 해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현옥⁶⁾과 김미영⁷⁾은 여로형 소설로서의 「통도사 가는 길」을 분석하고 있다. 조현옥은 작품에 반영된 여행의 의미를 공간이동을 통해 살펴보고, 현실적 삶을 ‘禁’의 세계로 보고 그것의 근원을 넘어서기 위해 ‘勿禁’이라는 공간을 제시해 존재론적 탐색을 하고 있는 개인적 내면소설로 규정하고 있다. 김미영은 70, 80, 90년대의 여로형 소설 중에 나타난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분석하여 시대별 여행 플롯의 차별화를 찾고자 하였다. 「통도사 가는 길」은 단자화된 개인의 여로이며 그 공간은 문턱의 크로노토프, 즉 ‘인생의 위기와 분기점의 크로노토프’⁸⁾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 역시 공간에 집중함으로써 여로형 소설 범주내의 의미 해석에 머물 뿐이다.

「통도사 가는 길」은 소설가인 주인공 ‘나’가 실연을 당한 후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양산 통도사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여행은 일상을 뛰어넘고자 하는 초월적 충동, 혹은 도피와 연계되어 있다. 길을 떠난 여행자는 낮선 시간과 공간의 탐색을 통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게 된다. 때문에 여행기는 보통 두 개의 세계를 담지하고 있다. 그 하나는 여정을 통한 서사⁹⁾이고, 다른 하나는 여정을 통해 변화되는 삶과 인생의 목표를

5) 채희운, 「금기와 위반의 변증법」, 『현대문학』, 1994. 9. p.389.

6) 조현옥, 「여로형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2.

7) 김미영, 「여로형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비평문학』 20호, 2005.

8) 미하일 바흐진, 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p.456.

9) 제라르 주네트(Gerard Genette)는 서사(narrative)를 ‘하나의 사건이나 일련의

형상화하는 과정을 담는다.¹⁰⁾ 「통도사 가는 길」도 예외는 아니다. 작품의 의미망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나의 실제적 여행체험을 통해 드러나는 서사의 축이고, 또 하나는 ‘나의 의식의 흐름을 통해 서사내부에서 변화하는 심리의 축이다. 통도사를 향하는 나의 심리의 변화는 욕망의 탐색과정이다. 이러한 욕망의 탐색과정으로서의 나의 심리는 기호 즉 언어에 의해 진술된다. 특히 여타의 여로형 소설과는 달리 「통도사 가는 길」은 주체의 심리를 묘사하는 기호에 주목해야 한다. 주체의 심리가 실제적 여정 보다는 기호에 의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도사 가는 길」의 두 축은 서사와 기호이다.

본고는 「통도사 가는 길」의 주인공의 여로와 심리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체의식을 라캉의 ‘주체의 ‘소외’¹¹⁾와 욕망, 그리고 기표와 기의도식을 통해 밝혀 보고자 한다.

사건들을 글로 된 것이거나 말로 된 담론으로 진술하는 것’, ‘실제적인 것이든 허구적인 것이든 연속적인 사건들이 담론의 주제가 된 것을 가리키거나 그 사건들이 연결되고 대립되고 반복되는 여러 관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담론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인간의 모든 관계와 동시에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이며, 언어를 통해 매개되는 진리의 형성과정을 지칭한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새미, 2006. 참조) 본고에서는 서사를 스토리, 즉 ‘일련의 사건’의 의미로, 담론은 언어를 통해 형성되는 의미의 과정으로 서술하고 있다.

10) 채희윤, 앞의 글, 388면.

11)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외(Alienation)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로부터 격리되는 느낌으로, 소외의 개념은 사회학이외에 철학 신학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소외의 두 가지 중요한 양상은 무력과 무의미감이다. 즉 다른 사람에 의해 공유된 가치나 문화적 규범은 소외된 개인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다. E.Fromm은 소외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서 경험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소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가 도리어 주인공이 되고 인간은 이것에 복종하며 심지어 그것을 숭배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소외라고 말한다.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78. 참고) 그러나 본고에서 ‘소외’는 라캉의 언어적 주체로서의 ‘소외’를 의미한다.

2. 서사를 통한 욕망의 확인

「통도사 가는 길」의 주인공인 ‘나’는 중년의 소설가이다. 이미 유부남인 나는 ‘청음(聽音)이 아닌 관음(觀音)’을 해야만 하는 ‘그녀’를 사랑한다. 표면적인 의미에서 나와 그녀의 관계는 불륜이다. 청음이란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그러나 관음은 다르다. 언어적 소통뿐만이 아니라 대상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조망하고 화자의 내외적인 모든 환경을 고려해야 그 의미가 형성된다. ‘청음’에 의한 관계는 보편적, 일반적인 관계지만 ‘관음’을 해야만 하는 관계는 일상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관음’에 의해 유지되는 그녀와 나의 관계는 보편적인 인간관계 즉 일반적인 남녀관계가 아니다.

어느 날 안아달라는 그녀의 말을 청음한 결과 나는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받게 된다. 그녀를 만나지 못한지 두 달 만에 나는 굴원의 『초사』를 들고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떠나는 나의 마음은 그녀에 대한 그리움에서 연유된다.

왜 하필 굴원의 시집을 들고 갔느냐구요. 요즈음 내가 굴원의 생애를 소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지요.(35면)

『초사』는 주군을 향한 굴원의 戀主之詞이다. 이를 수 없는 그 사랑(충절)의 좌절을 노래하는 怨詞이며, 주군에게 다가가고자 하나 갈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강물로 뛰어들어 자살한 굴원의 애달픈 마음이 담겨 있는 노래이다. 이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으나 다가갈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상태와 같다.

아내가 있는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금기의 위반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관음’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은 그녀에게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아내, 즉 여성은 남성인 나에게 있어서 성적인 존재이다.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존재, 즉 ‘침음’의 존재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르다. 나와 그녀가 ‘관음’을 통해서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녀를 안는 행위가 그녀와 이별하는 계기가 되는 것 등은 그녀가 나에게 일상성도 남성에 대립하는 여성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나에게 불륜에 근거한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다.

라캉에게 ‘욕망’은 존재의 근거이다. 라캉의 주체는 서구의 형이상학적 전통에서 말하는 의식적 주체가 아니라 무의식적 욕망의 주체이다.¹²⁾ 이러한 ‘주체’의 형성과정에는 소외와 분리가 필연적이다.¹³⁾ 라캉은 주체와 대타자와의 관계를 두 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처음의 단계는 그리스어로 ‘사라짐’을 뜻하는 아파니스시스(aphanisis), 혹은 주체의 페이딩(fading)이다. 이 사라짐은 바로 주체가 상징적인 대타자 속에서 태어나면서 불가피하게 기표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는 기표에 의해 정의된다. 기표의

-
- 12) 라캉은 자아와 주체를 분리한다. 1953년에 라캉은 주체와 자아(ego)를 구분하는데, 그 이후부터 라캉 생애의 모든 저술들에서 가장 근본적인 구분들 중 하나로 남게 된다. 자아가 상상계의 일부인 반면에 주체는 상징계의 일부이다. 따라서 주체는 단순히 자아에 의해 만들어진 착각에 불과한 행위자의 의식적인 지각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상응한다. : 라캉의 주체는 무의식의 주체이다. ... 정신분석이 근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라 주체이다. 딜런 에반스, 김종주 외 역, 『라캉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1998. 369-372면.. 라캉은 주체형성이 두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상상적 동일시로 거울 속에 비친 타자적 이미지를 아이가 자신의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아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상상계는 자아를 중심으로 자아의식이 수용되는 이미지들의 세계를 말한다. 다음 단계는 상징적 질서를 대표하는 대타자, 즉 아버지의 기표에 동일시함으로써 주체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이것을 이차 동일시라고도 하며 주체는 비로소 상징계에 자리잡는다. 김석, 『에크리』, 살림, 2007. p.129.
- 13) 자크 라캉, 자크-알랭 밀레 편, 맹정현, 이수련 역,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2008. 양석원, 「욕망의 주체와 윤리적 주체」, 『영미문학연구』1권, 2001. 참고

세계인 언어의 세계에서 태어나 기표를 부여받고 기표를 말하게 되면서 인간은 주체로 태어나지만, 기표에 의해서 대치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라깁은 이런 주체의 소멸을 소외(alienation)라고 부른다. 대타자와 주체 사이의 두 번째 관계는 분리(separation)이다. 소외에서 주체가 대타자의 의미사슬에서 기표들에 의해 사라진다면, 분리에서 주체는 ‘의미사슬의 균열을 공격하고… 이 균열 속에서 그를 자극하는, 의미의 효과가 아닌 어떤 것’을 경험한다. 소외가 주체를 분열시키고 기표에 종속시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분리는 주체에 의한 행동에 가까우며 근본적으로 주체가 대타자의 의미사슬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획득하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서울에서 출발한 나는 대구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 날 삼랑진 역에 도착한다. 삼랑진 역 플랫폼에 선 나는 어머니의 환영과 만나게 된다. 나는 중학생 때 고향인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부재 때문이다. 아버지는 교원노조를 주동했던 교사로 용공분자로 몰려 군사재판에 회부되기 위해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는데 나는 부산역에서 아버지와 이별하고 어머니는 삼랑진 역까지 아버지를 배웅한다.

이제 삼십년이 지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전송했던 그 자리에 내가 억겁 인연처럼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머니의 인생은 여기 삼랑진 플랫폼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보다 열 살이나 어린 어머니가 이 자리에 외롭게 서서 시대와 인생에 대하여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의 무게, 나는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어깨를 짓누른 그 인생의 짐들을 환히 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사십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진정으로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햇빛은 나의 인식처럼 부드럽고 환했습니다.(43면)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를 ‘무너지게’ 한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대타자이며, 어머니는 나의 대타자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무너진 어머니는 나의 대타자의 갑작스런 소멸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와 강제

적 분열을 겪게 된 나의 트라우마로 남는다. 나는 정규직장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기 위해 나는 작가가 되었다. 또 결혼하여 아내가 있지만 같이 잠들지 못하고 '혼자서 잠들'어야만 하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더욱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와의 불륜관계에 대한 죄의식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비정상성은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상징계에 진입하는 경로를 거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상징계에 던져진 주체의 혼란에서 기인한다. 그 트라우마로 인해 나는 잃어버린 어머니를 욕망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무너져'버렸기에 나는 어머니와 만날 수 없었다. 만날 수 없는 어머니의 대리인이 바로 관음해야만 하는 '그녀'이다.

내 작품에서 여자들이 구체적인 인격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여자들을 그리고 있다기보다, 여자들에 대한 체험이 무의식으로 들어가 애니마(anima)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분석심리학의 표현을 빌리면, 내 작품의 주인공들은 대개 애니마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고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막연한 동경 속에서 해매는 경향이 다분하다.¹⁴⁾

위의 작가의 말에서도 '그녀'는 '막연한 동경의 대상'으로서 어머니의 환유임을 추측할 수 있다. 삼랑진에서 '태어나서 사십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진정으로 만난' 나는 비로소 어머니와의 분열을 인식하고 분리를 경험한다. 이것은 소외된 주체에게 극복의 실마리가 된다. '나는 배낭 속에만 넣어두고 아직 꺼내지도 않은 굴원의 시집을 읽어볼까 하다가' '자연을 읽기로 한다. 『초사』는 그녀에 대한 나의 간절함을 의미한다. 『초사』를 '넣어둔다'는 것은 나의 간절함이 희석됨을 의미한다.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해 나는 욕망의 대상인 '그녀'와도 분리되기 시작한다.

이 작품의 인물 관계는 라캉의 기표와 기의 도식의 환유이다. '나'와 '그녀', '나'와 '어머니'의 관계는 戀人과 母子라는 기표의 주위를 떠돌고 있을 뿐이었다. 나와 어머니는 모자관계다. 그러나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14) 김만수, 앞의 글, p.37. -작가 인터뷰 중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진정한 어머니와의 만남, 즉 진짜 모자관계의 회복이다. 그녀와 나와 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이다. 나와 그녀는 '연인'처럼 기술되고는 있지만 청음할 수도, 안을 수도 없는 그녀는 상징계적 의미에서 연인이 아니라 '막연한 동경의 대상'일 뿐이었다. 때문에 진정한 어머니를 만난 나에게 그녀의 그림자는 희미해져 간다. 그녀와 나의 관계는 연인의 기의에 닿을 수 없으며 그녀는 단지 어머니의 대리자로서 나의 욕망의 대상일 뿐이다.

목적지였던 통도사에서 '텅 빈 불단'을 통해 '법열'을 느낀 나는 그 허공속으로 나와 그녀마저 사라짐을 느낀다. 뒤돌아서서 보게 된 환상의 '거대한 문'은 '넘어섬'의 상징적 기표가 된다. 문을 넘어선다는 것은 통과 의례의 일종이다. 문 밖과 안은 다르다. 라캉의 견해에 따르면 문 밖과 안이라는 기의는 기표 아래로 미끄러지며 구멍을 남긴다. 그 구멍은 무의식으로 작용하며 욕망의 근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실현이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문 밖의 욕망은 분명히 문 안의 욕망과는 다른 것이다. 「통도사 가는 길」은 일종의 열린 결말이다. 통도사에 도착한 후 내가 느낀 '법열' 즉 욕망의 실현의 순간은 찰나적인 것이다. 통도사를 돌아 나오며 나는 다시 '거대한 문'을 본다. 문 안에 들어 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문 밖에 서게 된 것인지, 상징계적 질서에서 금기인 그녀와 나의 관계가 변한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열린 결말은 주체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서사의 축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주체의 소외와 극복의 과정은 '나'의 의식이 천착하는 기호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미끄러지는 주체의 기표

「통도사 가는 길」은 표류하는 기표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끊임없이 기표 아래로 '미끄러지는' 기의들 사이에서 닿을 수 없는

기의를 욕망한다. 나는 자유를 욕망한다. 내가 작가가 된 이유가 바로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공간으로부터의 자유, 나아가 나를 둘러싼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갖기 위함이다. 그러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한 여행길에 일과 고뇌의 기표인 『초사』를 들고 가는 것은 자유라는 기표에 속박되어 기의에서 소외된 주체의 위치를 정해주고 있다. 나의 직업이 작가인 것도 은유적이다. 언어는 상징계가 약속하듯이 보이는 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언어적 숙명을 지닌다. 그러나 작가들은 그 숙명을 넘으려는 수사적 욕망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나는 왜 통도를 「通道」로 알았을까?」로 시작한다. 나는 「通道」라는 기의에 이끌려 통도사로 향한다. 결별의 괴로움을 극복할 어떤 것, 즉 ‘道」를 찾아 通道로 향한다. ‘통도’와 동일한 의미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의 주제는 알다시피 모든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물질도 없고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눈과 귀와 코와 혀도 없고 몸과 마음도 없고, 형태와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도 없고, 눈으로 보는 영역에서 의식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무명도 없고 늡음과 죽음도 없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언가 얻을 것도 없다 이거지요. 얻을 것이 없으니 마음에 걸림도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일체의 두려움이 없어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지요.

없을 무(無) 자가 스무 번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는 『반야심경』을 매일 마음 써서 독송한다면, ‘있다’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겠지요. 말하자면 공(空)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36면)

라캉은 종교에서부터 의학, 과학, 철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언어적·상징적 세계에 속하는 사유형태라고 보았다. 또한 차이나 모순 대립에 대한 초월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적 철학이나 종교적 이상들은 모두 비언어적 거울단계의 상상계의 사유형태라고 보았다. 따라서

반야심경의 공의 세계는 상상적 세계이다. 있음이 없음이 되고, 없음이 있음이 되는 반야심경의 세계는 상상계일 수밖에 없다. 상상계로의 귀환은 소외된 채 상징계에 유폐된 주체의 욕망이다.

홀로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홀로'에 반하는 표상들에 둘러싸이게 된다. '홀로'는 나에게 자유 혹은 벗어남의 기표다. 그러나 버스 안에 '홀로' 앉은 나는 '홀로'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옆의 빈자리를 의식하게 된다. 빈자리는 이전의 여행에서 만났던 여인이고,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그녀'가 된다. 나는 빈자리를 보며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렀던 누군가를 의식하며 '빈자리'와 '동행'한다. 내가 '홀로'라는 기표를 떠올리는 순간 그 기의는 미끄러진다.

자살로 죽은 후배의 누나와의 동행을 회상하는 장면에서는 '무관심'이 '고마움'이 된다. 대구에 도착해서 '혼자 누워있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던 여관방에서는 어느 순간 들려오는 '여자의 신음소리'와 '동침'을 하게 된다. 또한 쾌락의 절정에서 내지르는 여인의 신음소리는 '생명과 죽음이 맹렬히' 만나는 소리가 된다.

버스 안에서 홀로/빈자리와의 동행, 무관심/고마움, 여관방에서 느끼는 텅 빈 자유로움/교성과의 동침, 생명/죽음의 만남이라는 기표들의 모순적 대립 관계는 기의에서 소외된 주체의 상징적 사유형태이다. 나의 의식의 발현인 이 기표들은 그 기의와 만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야심경』의 '있음'이 '없음'이 되고 '없음'이 '있음'이 되는 **공**으로 환유되는 상상적 세계를 욕망한다.

나의 이러한 욕망은 꿈으로 드러난다. 꿈과 환상에는 프로이트적 인식이 절제 깔려 있다. '금기로서 오랜 동안 억압되어 있던 욕망이나 불안이 기괴한 사건을 통하여 표면에 떠오르는 현상, 즉 억압된 것들의 복귀가 환상 혹은 꿈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환상은 이성중심의 계몽주의적 세계관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반영인 지배이데올로기 자체, 즉 상징계에 대한 저항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¹⁵⁾

이 환상 덕분에 주체는 실재계¹⁶⁾를 경험하게 된다. 실재계는 정신적 외상(trauma)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다. 정신적 외상의 반복출현을 돕는 것이 바로 욕망의 담지자로서의 꿈이다. 실재계는 상징계 안에, 즉 기표들 안에 잠복해 있다.

「통도사 가는 길」의 꿈과 환상은 주체가 상상계와의 조우를 통해 실재계에 도달할 수 있는 매개적 장치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통도와 통도사에 대한 꿈을 여러 번 꾀다.

나는 종종 이런 꿈을 꾸기도 하였지요. 나는 힘들여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언덕만 넘으면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덕배기로 올라와 보니 엄청나게 큰 문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은 거무튀튀한 꿈은 나무들로 짜 맞추어진 것으로 차라리 거대한 벽이라고 할 만합니다. ... (중략) ...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문 앞에 서 있으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져 오는데, 그것은 그 문 자체가 하나의 세계요 길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꿈속에서 종종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인 하동

15) 맥락과 비평 현대문학 연구회, 앞의 책, 342면.

16) 라캉에 의하면 실재계란 무엇보다도 상징계가 주체의 의미세계인 현실로부터 배제한 부분으로, 상징화를 벗어나는 모든 영역을 다 실재라 할 수 있다. 첫째, 실재는 상징계에 동화되지 않는 여분 혹은 상징화에 대한 저항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실재계가 잃어버린 대상의 모습으로 주체에게 다가오는 것을 물(Ding)이라 지칭하면서, 대상을 물의 지위에 고양시키는 작업을 승화라 하고, 이때 물은 실재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욕망의 궁극적인 대상이다. 시니피앙에 의해 구성되는 상징계는 자신이 존재하는 영역으로부터 이 실재를 배제하면서 현실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상징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상징화에 들어 오지 않는 부분을 사유로부터 배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분은 주체에게 불안의 효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실은 실재에 대한 열망을 야기하는데 이는 주이상스의 토대이다. 둘째, 실재는 주체의 원초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실은 성적인 현실이자 육체이기도 한데 상징계 질서에 의해 재편되고 질서밖에 부여되면서 비로소 인식의 대상이 된다. 상징화는 배제된 부분을 남기기 마련이다. 이때 실재는 환각적 형태로 상징계에 침투한다. 마지막으로 실재는 균열이 없는 충만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다. 상징계가 상징화에 수반되는 차이와 제한의 질서라면 실재는 무한함과 통합의 질서이다. 자크 라캉, 김석 역, 『에크리』, 살림, 2007. 236-246면.

근방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세워져 있는 듯도 했고, 남한과 북한의 경계인 휴전선 일대에 서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 (중략) … 이번에도 사실 여행길에 오르기 전에 그 문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 문은 그녀가 누워있는 방과 내가 누워있는 방의 경계에 세워져 있는 듯이 여겨졌습니다. 꿈속에서는, 집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집들을 다 삼킨 듯한 거대한 문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문이 꿈속에서 나타날 적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까마득히 높은 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어김없이 문 꼭대기에 ‘통도사’라는 세 글자가 하얀색으로 적혀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도, 통-도. 꿈 전체가 ‘통도’라는 기이한 울림으로 가득 메워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전율하게 마련이지요. 그런 꿈을 여러 번 꾸었으면서도 나는 통도사를 선뜻 찾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을 꺼렸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꿈을 종종 꾸는 것인가. 나 자신을 분석해 보아도 그 이유를 잘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통도사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 ‘통도’라는 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삶에서 길이 자주자주 막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길을 뚫어나가고 싶은 무의식적인 소원이 통도라는 말과 관련된 것은 아닌가. 대강 이정도 밖에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 (중략) … 그녀와 나의 사이에 막힌 길을 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몹시 낙담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또 그 꿈을 꾸었고, 꿈에 이끌리듯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통도사를 이제야 찾아 나선 것이다.(47면)

꿈속에서 나는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힘들여 언덕을 올라’간다. 그러나 그 ‘언덕배기’에는 ‘엄청나게 큰 문’ 아니 벽이 가로막고 있다. 경상도/전라도의 경계, 이승/저승의 경계, 남한/북한의 경계, 내 방/그녀의 방의 경계이다. 일반적으로 경계는 금기¹⁷⁾다. 프로이트는 금기는 신성함과

17)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종업 역,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1995. 43-44면. '타부는 폴리네시아어 말이다. 우리는 타부의 의미를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에서 이해하고 있다. 타부는 우리들에게 한편으로 '신성한', '성별된' 무엇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위험한' '금지한' '부정한' 것이다. 타부의 반대말은 폴리네시아어에서 '노아(inoa) 인데, 이것의 의미는 '평범한' '늘 범접가능한'이다. 타부에는 '삼가다'의 개념 같은 것이 들어 있으며, 그 본질도 금지와 제약을 통해 드러난다.

부정함, 금지와 위반의 양가감정을 동시에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 혹은 벽은 ‘넘어가다’의 기표인 동시에 ‘넘어서는 안되는’ 기표이다. 모순이면서 역설의 기표이다. 하지만 나는 이 문 앞에서 불안이나 좌절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져’ 오고, ‘문 자체가 하나의 세계요 길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나는 그 벽을 금기나 위반의 기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기표 너머의 있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나의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반야심경』의 ‘공(空)’의 환유이다.

그러나 기표적 상징계 안에서 나는 소외된 주체, 욕망하는 주체일 뿐이다. 때문에 주체는 ‘통도사를 선택 찾아 나서지’ 못한다. 그녀의 이별 선언으로 나는 또 다시 불안감을 느낀다. 그 불안은 나를 오랫동안 망설였던 통도사로 향하게 한다. 삼랑진에서 나는 환상을 통해 어머니와 만난다. 진정한 어머니의 귀환이며, 욕망 실현의 순간이다.

그러나 물금(勿禁)역에서 욕망의 실현은 다시 또 간섭받고 지연된다. 아무 것도 ‘금하지 않는’ 물금 역에서 ‘금지’를 만나는 순간 나는 여전히 기표의 세계를 떠돌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녀와 나의 관계 역시 ‘물금과 ‘금지’처럼 숨바꼭질한다.

4. 지연되는 욕망

통도사에 도착한 나는 꿈속에서 보았던 문을 기대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문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고 ‘꿈속의 그 문을 어디

‘성스러운 두려움(holy dread)’이라는 복합적인 표현이 타부의 의미에 대체로 부합할 것 같다. 타부에 의한 제약은 종교적 금지나 도덕적 금지와는 다르다. 타부에 의한 제약들은 신의 계율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기준적이다. 또 도덕적 금지들과 달리 일반적 절제를 필수적으로 선언하면서 그 필수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 타부에 의한 금지는 이유불문의 금지이며, 그 기원도 불분명하다. 우리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타부의 지배아래 있는 사람들에겐 아주 당연한 것이다.’

에선가 발견할 것만 같은 예감'에 경내 깊숙이 들어간다. 세월과 비견된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하는 통도사에서 '한 터럭 흠먼지'로 남을 것 같은 그녀에 대한 나의 감정은 '오층석탑의 무게만큼이나' 나를 짓누른다. 법당 안에 들어 간 나는 '불단-허공을 향해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아가씨를 보게 된다. 다시 불단으로 눈을 돌린 나는 '空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허공이었습니다. 허공으로 인한 충격이 나를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 (중략)... 불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붉고 푸른 연화문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삼층 불단은 그 너머 허공으로 통해 있었습니다. 그 허공은 막연한 형태가 아니라 가로누운 직사각형으로 반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아한 허공이었습니다.

부처는 그 허공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반야심경』의 구절대로라면 부처도 없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대로 앉은 채 부처가 사라진 그 『반야심경』의 세계를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 (중략) ... 한순간, 오층석탑의 무게로 나를 내리 누르고 있던 그녀의 존재가, 시선이 머물고 있는 허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도 허공 속으로 빨려들어 갔습니다.(51면)

'나는 부처가 사라진 불단을 보며 『반야심경』의 空=道을 깨닫게 된다. 空, 즉 '비어있음'은 기표이다. '부처가 사라진 불단'이라는 기표는 '비어있음'의 기의에 가깝다. 수백 번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도 기의는 기표 아래로 미끄러지며 나는 기표에서 기표로 표류할 뿐 '空' 즉 비어있음의 실체에 다가설 수 없었다. 그러나 부처가 사라진 불단의 '단아한 허공'은 마침내 기표와 기의가 만나는 '고정점'¹⁸⁾이며 상상계와 상징계의 경계에

18) 라캉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한다

기표 Signifier
 기의 signified

위치한 실재계와 조우하는 한순간이 된다.

이제 ‘텅 빈 불단’ 앞에서 ‘나’와 ‘그녀’ 모두 그 ‘허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만다. 남아있는 것은 ‘삼랑진 플랫폼에’ 홀로 선 어머니뿐이다. 그러나 통도사를 나서며 나에게 남은 것은 다시 기표뿐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허공도 범당도 천정처럼 푸르스름한 단청에 덮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저 아내가 지나가면 어스름이 오고 어스름이 지나가면 어둠이 곧 뒤따라올 것입니다. 통도사를 나와 노송이 우거진 도보길로 들어서니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통도사에서 멀어질수록 절 뒤편 영취산이 점점 높아지고 우람하게 보였습니다. 무풍교에 이르렀을 무렵 다시 한번 영취산을 뒤돌아보았는데, 아 거기 내가 꿈 속에서 보았던 거대한 문이 서 있었습니다. 그 거무스레한 문 꼭대기를 까마득히 올려다보니 통도사라는 하얀 세 글자가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도는 ‘通道’가 아니라 ‘通度’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51-52면.)

대문자화된 기표Signifier는 기의 signified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라캉에게 두 부분을 나누는 ‘가로선’은 기호의 불가분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분열을 상징한다. 가로선은 의미에 대한 장벽으로서 기능한다.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항상 장벽이 존재하므로 기표가 지시하는 것은 기의가 아닌 다른 기표이다. 요컨대 기표는 우리를 다른 기표로 안내하고 의미작용의 끝없는 연쇄 안에서 다시 우리를 다른 기표로 이끈다. 우리는 기호들을 만들어내는 끝없는 과정 속에 포획되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했던 언어체계에 대한 우리의 도식적 표현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된다.

기표 기표 기표 기표
기의 -> 기의 -> 기의 -> 기의

의미작용은 항상 과정 - 연쇄 - 이다. 그 요소들 중 어느 것도 실재로 의미나 기의로 구성되지는 않으며 다만 각 기표가 다음 기표를 향해 밀고 나갈 때 의미가 강요될 뿐이다. 의미는 고착되어 있지 않으며 라캉의 말로 바꾸면 ‘기표 아래로 기의가 꾸밈없이 미끄러진다.’ 그러나 라캉은 ‘고정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누빔짐’ 또는 ‘고정짐’이라고 부른 순간이 있는데 이는 기의가 기표 아래에서의 끊임없는 미끄러짐을 멈추며 잠시 동안 안정된 의미작용이 가능해지는 지점이다. 『라캉읽기』 81-82면.

작품은 ‘나는 왜 통도를 通道로 알았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알았을까’라는 기표는 ‘몰랐다’의 환유이며 역설적 표현이다. ‘알고 있다’는 주체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라캉에 의하면 상상계는 존재의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 통도사(通道寺)가 상상적 공간이었다면 나의 욕망의 대상인 통도로 통하는 ‘문’의 진정성도 상실한다. 이제 通道의 자리에는 通度가 위치한다. 예전에 ‘알았던’ 通道가 상상계적 욕망이라면, 이제 ‘알게된’ 通度는 상징적이다. 通道를 찾고자 했던 나의 욕망은 ‘通度’를 알게 된 순간 실현 불가능해 진다.

나의 탐색은 通道에 대해 ‘알았을까’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한다. 나는 道나 空을 욕망해 왔다. 그러나 그것의 기의는 기표 아래로 미끄러지며 나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나의 욕망은 ‘경계’로 환유된다. ‘문’앞에서 문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 문 안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나의 탐색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욕망의 실현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욕망 또한 주체의 것이 아닌 대타자, 혹은 무의식의 욕망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인간은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다.

통도사 불단에서 마주한 ‘법열’의 순간은 ‘道’ 혹은 ‘空’의 기의이다. 법열의 순간이 지나고 나는 다시 법당 안 현실로 돌아온다. 짧은 순간 마주한 기의는 기표 아래로 미끄러진다. ‘어스름이 지나면 어둠이 오고’ 그 어둠이 지나면 다시 빛이 오는 것처럼, 다시 또 ‘거대한 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뒤돌아서 보게 된 문은 경계의 기표를 상실하고 만다. 안과 밖의 경계를 문이라고 할 때 어디가 안이고 어디가 밖인가. 통도사를 목표로 여정을 시작할 때 문은 욕망의 기표였고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법열의 순간이 지나고 문은 내 ‘뒤’에 있다. 그렇다면 나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인가? 나의 욕망은 실현된 것인가? 뒤돌아서면 문은 다시 나의 앞을 가로 막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문 앞에 있는 것인가. 문 뒤에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알게 된 것은 ‘度’이다. 度는 윤리, 도덕, 기존 질서, 법 등의 금지, 규제의

상징적 기표이다. 그러나 ‘알았다’는 또 다시 ‘알았다’의 기표에서 미끄러진다. 라깁은 욕망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욕망이 언어로 표현되기에 욕망 또한 기표 아래로 미끄러지고 지연되어 결코 기의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숙명이다.

「통도사 가는 길」은 욕망의 여정이다. 나는 소외된 채 기표와 기표 사이를 떠돌며 기의를 맴도는 성취될 수 없는 욕망의 주체로써 작품에 위치한다.

5. 결론

본고는 라깁의 주체의 소외와 욕망, 그리고 기표와 기의 도식이라는 정서분석의 도구들을 가지고 「통도사 가는 길」의 서사와 기호를 살펴보았다.

인물과 사건의 관계 구성방식인 서사에서 주체인 나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강제적으로 어머니를 잃게 된다. 그로인해 나는 소외된 주체로서 대타자인 어머니를 욕망한다. 또한 나는 보편적 인간으로 상징계에 안착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욕망은 그 대리자로서 ‘그녀’를 사랑하게 한다. 그녀는 나에게 상징계적 의미에서 여인이 아닌 상상계적 어머니, 즉 대타자이다. 통도사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나는 이러한 소외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계기를 발견하게 된다.

다음으로 인물의 심리 변화는 기표와 기의도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체는 언어적 존재로서 기표에서 기표로 떠돌며 그 기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소외된 주체로 존재한다. 여정에서 주체의 심리를 드러내는 기호들인 ‘홀로’/ ‘동행’ ‘동참’의 모순, ‘물금(勿禁)/금(禁)’의 역설, ‘문밖’/‘문안’의 비틀림, ‘도(道)/도(度)’의 자리바꿈 등은 그 기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표들 사이에서 떠돌 수밖에 없는 주체의 운명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의 말미에 나는 통도사에서 ‘법열’의 체험을 함으로써 기의에 도달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욕망의 실현은 지연된다.

하지만 그것은 좌절이 아닌 가능성이다. 그것은 욕망하는 주체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며, 열린 결말을 만들고 있다.

<국문초록>

여행이란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 혹은 도피와 관련된다. 길을 떠난 여행자는 낯선 시간과 공간의 탐색을 통해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여행은 실제적 여행이든 ‘은유로서의 여행’이든 간에 근대 서사문학의 내적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로형 소설은 여행자인 주인공의 욕망의 탐색과정이다. 이러한 탐색의 과정은 서사와 기호 즉 언어에 의해 드러난다. 서사란 사건들이 연결되고 구성되어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건과 관계 맺는 유기적 인물의 심리는 기호에 의해 서술된다. 때문에 서사와 기호 분석을 통해 주제의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통도사 가는 길」의 두 축, 즉 서사와 기호의 차원에서 주체의 소외와 욕망을 밝혀 보았다. 주인공은 ‘그녀’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여행을 떠난다. 그 여행의 과정에서 ‘그녀’에 대한 나의 욕망은 ‘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통도사를 향해 가는 여정이다.

여행의 과정을 통해 주인공은 욕망의 실체와 마주치게 되고 그 과정은 ‘기호’에 의해 드러난다. 주인공의 의식이 천착하는 기호는 라캉의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 보았다. 주인공은 기표의 세계를 떠돈다. 기의를 갈망하나 결코 만날 수 없는 소외된 기표의 운명은 주인공의 운명과 동일하다. 이러한 일련된 서사는 주체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주제어: 여로형 소설, 서사, 기호, 주체, 소외, 욕망, 기표, 기의

<참고문헌>

1. 자료

- 조성기, 「통도사 가는 길」, 『세계의 문학』, 1990. 여름.
최원식, 임규찬, 진정석, 백지연 엮음, 『20세기 한국소설37』, 창비. 2006.

2. 논저

- 권영민,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9.
권택영, 『라깡. 장자. 태극기』, 민음사, 2003.
김경수, 「자성소설의 대두와 그 의미」, 『문학의 편견』, 세계사, 1995.
김만수, 「한국의 작가9-세속과 초월 사이의 풍자적 긴장」, 『현대 소설』, 1991. 겨울.
김미영, 「여로형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비평문학』, 20호, 2005.
김종호, 『존재와 소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0.
도정일, 「자크라캥이라는 좌절/유혹의 기표」, 『세계의 문학』, 1990. 여름.
맥락과 비평 현대문학연구회 편저, 『라깡과 문학』, 예림기획, 1998.
박선경, 『현대 심리소설의 정신분석』, 계명문화사, 1996.
서정철, 『인문학과 소설 텍스트의 해석』, 민음사, 2002.
신철하, 「산: 초월에서 세속적 진실로」, 『푸른 대지의 희망』, 세계사, 1995.
양석원, 「욕망하는 주체와 윤리적 주체」, 『영미문학연구』, 2001. 1권.
이기종, 「작가의 성화에 관한 연구-김현승, 조성기의 경우」, 백석대석사, 2008.
이남호, 『우리시대 우리작가19-조성기』, 동아출판사, 1983.
이연숙, 「장용학 <요한시집>의 정신분석적 고찰」,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제8권 2호, 2006.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78.
조현옥, 「여로형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2.

채희윤, 「금기와 위반의 변증법」, 『현대문학』, 1994. 9.

황도경, 「어두운 시대의 길찾기」, 『작가세계』, 1992. 가을.

3. 번역서

딜런 에반스, 김종주 외 역, 『라캉의 정신분석 사진』,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8.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자크 라캉, 김석 역, 『에크리』, 살림, 2007.

_____, 자크 알랭 밀레 편, 맹정현·이수련 역,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2008.

_____, 민승기·이미선·권택영 역,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종엽 역, 『토텐과 타부』, 문예마당, 1995.

손 호머, 김서영 역, 『라캉읽기』, 은행나무, 2009.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How to Read 라캉』, 웅진 지식하우스, 2007.

〈Abstract〉

A Study of Cho Sung Ki's 〈A road to Tongdosa〉

Yoo, Suyeon

A journey is associated with transcendental impulse or escape to get out of routines. A traveller leaving for roads gets to open new horizons of awareness through searching unfamiliar time and space.

The journey like this, irrespective of whether it's a real journey or a journey as a metaphor, is based as the internal form of modern narrative literature.

A journey type-novel is the searching process of a hero's desire. It is exposed by narration and language and in other words, by symbol. Narration is made up for a chain of incidents and these form meanings. Also, the psychology of a related character who is involved in incidents is narrated by symbol. As a result, the subject's consciousness can be revealed through the analysis of narration and symbol.

This thesis attempts to prove the alienation and desire of the subject with two axes of 〈A road to Tongdosa〉, i.e narration and symbol. The hero leaves the journey because of the earnest desire for "her". This journey process shows that his desire for her comes from a vague sense of longing for his mother. The process to confirm his being is the journey to Tongdosa.

While on journey, the hero is confronted with the reality of his desire and the process is revealed by symbol. Based on Lacan's theory, this paper

analyzed the symbol where his consciousness arrives at. The hero wonders about the signifier's world. A alienated signifier's destiny, who longs to meet the signified but not to meet is the same as that of the hero. A series of narrations hint at the possibility for the subject to overcome his alienation,

Keywords: Journey-type novel, narrative, symbol, subject, alienation, desire, signifier, signified

유수연

전북대학교 강사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sy6690@naver.com

이 논문은 2011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7월 2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8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